

[로스쿨 합격기]

로스쿨 입학이라는 관문을 넘어

김한가희

- 1985년 9월 생
-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졸업 (04년)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1년)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I. 들어가기 전에

작년 이맘때쯤 고시계에서 수록된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으로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합격기를 복사해서 읽은 것이 엇그제 같은데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가능한 한 법전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법전원 입학은 리트를 준비하는 과정, 리트 점수를 받고 지원하는 과정, 면접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시기이지만 잘 극복하여 법전원에서 법조인으로서의 꿈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II. 법전원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이유

저는 모교인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할 때부터 주위에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법전원으로 제 인생의 방향을 돌리기 전까지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2007년에 법전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도 저를 비롯한 같은 과 학생들은 다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전원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2009년도부터 사법고시와 법전원 입학이라는 두 갈래에서 고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2009년 리트 시험에도 응시하였으나 다시 사법고시로 방향을 돌려 2기 입시에는 지원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법학과 학생들도 법전원에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가능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법고시에서 법전원으로 인생의 방향을 돌리게 된 이유는 사법고시를 보는 이유와 법전원을 입학하는 동기가 변호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는 것으로 같기 때문에 굳이 어느 한 쪽 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성격이 외향적이어서 법전원에 입학하게 되면 실무수습을 방학 때 나가게 되어 법을 생동감 있게 익힐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법전원에 입학하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외향적인 성격인 분들일수록 '고시'보다는 법전원에서의 변호사시험 준비가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법학과 학생으로서 법전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법전원을 지원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법고시보다 변호사 되기 쉬워 보여서라고 생각한다면 입학 후에 큰 후회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6개월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학사관리 엄정화로 인해서 학점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또한 변호사 모의시험 유형을 보아도 사법고시와 비슷합니다. 형법의 경우 사시와 달리 특별법까지 다 포함해서 문제가 출제되는 등 범위가 광범위해서 이를 따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변호사 시험 대비 기록형 모의시험에 응시해 본 결과 기존에 없던 출제 분야이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법고시보다 공부기간은 짧지만 범위가 더 광범위하므로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난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시보다 변호사 되기 쉽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입학 후생각과 다른 현실에 건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고 사법고시와 법전원 중 하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III. 법전원 입시에서의 전체적인 준비

우선 성실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전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리트, 어학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부생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역시 계획성 있게 성실히 준비하시는 것이 법전원 입시 재수를 하지 않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정보 수집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는 리트 점수 이후 지원 대학교를 정할 때 많이 요구됩니다. 리트 보기 이전에는 따로 공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리트 이후 지망하는 법전원을 정하고 면접 준비를 하실 경우에는 스터디를 꼭 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터디를 통해서 지원 대학교의 커트라인을 알 수 있고, 면접 출제 방향 등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제 주변의 합격하신 분들 중 한 분은 정보 수집을 잘 하셔서 성공하신 케이스가 있습니다. 같은 대학교라도 가군, 나군 커트라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셔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아직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졸업요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점이 졸업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라면 겨울 계절학기를 들으셔서 꼭 졸업요건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IV. 학점과 공인영어점수

1. 학 점

학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학점에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학교가 많고, 학점에 비중을 두어도 조금 높게 두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학점만을 보는 것은 아니므로 학점이 낮다고 하여 좌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학점이 높았지만 학점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학점이 낮은 분도 리트 또는 영어성적이 높아 좋은 결과를 얻은 예가 많습니다. 이미 학점이 나와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다른 영역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학 중이시라면 리트가 항상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학점을 잘 받으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과 수석, 차석의 경우 법전원에서 합격 결정 여부에서 많은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학부 재학 중이시

라면 학점을 최대한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에 열리는 계절학기를 이용하여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낮은 학점은 재수강을 통해 높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공인영어점수

공인영어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시험으로는 토익, 토플, 텡스가 있습니다. 토플과 텡스의 경우 높은 점수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토익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텡스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서울대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도 6월 전까지는 텡스 점수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6월을 넘으면 리트 준비에도 많은 신경이 쓰여서 그 때까지 영어 점수가 일정정도가 안되면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토익을 준비하였고 900을 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중간에 영어를 그만 둔 것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면 더 좋을 텐데.'라는 후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법전원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9월 달까지 토익을 계속하여 보시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만점이 이미 나왔다면 상관없지만 그 전까지는 원서 지원 전까지 최대한 높은 점수를 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기타(수상실적 등 경력)

각종 대회에서 수상실적이나 인턴 또는 직장생활 경력 등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법전원의 기본 취지가 다양한 전공과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을 뽑을 때 이러한 점들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력들은 법전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기 소개서를 쓸 때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외부 실적과 경력들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력과 실적들은 리트, 학점, 영어 등의 성적이 비슷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할 때 작용될 수 있는 것이지 위 세 요소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V. 리트(LEET) 준비

1. 리트시험의 특징

법전원 입시에 있어서 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트 점수가 잘 나오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면접에 있어서 심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트 시험의 속성이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단기간의 준비로 많은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투입하는 시간 대비 오르는 점수 폭이 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법전원 입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학점과 공인영어시험 성적 등 투입 대비 산출이 높은 영역에서 점수를 높이 받는 것에 힘쓰고 리트는 마음 편히 치는 것에 중점을 두라고 자주 권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리트 시험 결과와 후배들이 시험을 잘 못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앞으로는 이런 권유를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리트 같은 언어능력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경우에는 언어능력이 뛰어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는 반면, 난이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 격차가 확실히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같이 난이도가 높게 출제될 경우 언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분들의 경우 준비를 덜 한다면 기대보다 많이 낮은 점수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는 리트 공부에 많은 비중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트 준비를 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학원 실강, 동영상 강의, 스터디 등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준비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나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물론 직장생활을 병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혼자 준비하셔야 될 것이지만 시험이 다가올 때에는 반드시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학원 실강과 동영상 강의의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남이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고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에 중점을 두시지 마시고 스스로 풀어보는 시간에 더 비중을 두셨으면 합니다. 저의 경우 3~4월에는 학원을 다녔으나 개별적인 공부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5월 달부터 선후배들과 리트 스터디를 꾸려 주당 1~2회 모여 문제를 풀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언어이해

리트 언어이해 공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리트 시험 치기 전까지 그동안의 리트 기출문제는 물론이고, MEET·DEET 언어추리 문제, PSAT 기출문제, 수능 언어영역 문제 등을 다 풀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훨씬 공신력이 있고 답도 명확하며 틀려도 왜 틀렸는지 쉽게 이유를 알 수 있어 공부하기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중심으로 리트를 공부하시면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쿨 학원에서 강사님이 강조하시고 저 역시 과거에 수능 언어를 공부하면서도 느끼는 바이지만 언어의 경우 문제를 틀릴 때에는 왜 틀렸고 왜 다른 지문이 답이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틀릴뿐더러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도 점수는 그대로인 상황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저의 경우 리트 시험 한 달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풀 때 가능한 이러한 방식으로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스터디원들과 같이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고 바로 답을 맞추고 해설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시험 당일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3. 추리논증과 논술

추리논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트 과목 중에서도 가장 점수 올리기 쉬운 과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추리논증의 경우 학원 실강이나 동영상 강의를 통해 문제풀이 방법을 익혀두시면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복된 패턴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어 정형화된 풀이방식을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아도 언어이해보다 추리논증에 많은 투자를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언어능력이 별로라고 느끼시는 분도 정형화된 풀이방식을 많이 외워두시고 반복하시면 추리논증에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노력을 해서 한 때 학원 모의고사 추리논증 시험에서 고득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서도 추리논증 공부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스터디 그룹에서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모두 잘하는 학생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분들께 추리논증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여 풀어야 할지 잘 모르거나, 해설이 이해가 안 될 때 물어보면 해설지보다 쉬운 간편한 풀이 방법을 알려주어 많은 도움이 되곤 했습니다. 추리논증의 경우 이해가 안 될 때 혼자서 공부하면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할 수 있으니 학원 실강이나 동영상 강의 또는 스터디를 통해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에 대해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소 시간이 나는 3~5월 달에 많이 써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학원에서 하는 논술 첨삭도 잠깐 받아본 적도 있고 대학교에서 여는 글쓰기 강좌를 통해 도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논술의 경우 반드시 직접 쓰시고 다른 사람의 첨삭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터디원들이 시간을 내서 쓰고 돌려서 채점 기준표에 의해 첨삭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VI. 자기소개서와 면접준비

1.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떠한 자기소개서가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이 학부가 법학과인 학생들의 경우 사시공부를 하다가 방향을 돌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비법학과 학생들보다 교수님들께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은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저의 경우 학부생 시절 모의재판 경험이 있어 이를 자기소개서에서 많이 활용 하였습니다. 학부생 시절의 동아리 활동이나 모의재판 또는 대회 경험 등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 자신의 장점을 많이 언급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지원동기와 관련해서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면이 좋게 보일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동기에 있어서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의 장점을 여러모로 생각하고 찾아보신 후에 이를 자기소개서의 지원동기 란에 적절히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장점을 여러모로 생각을 해보았고 이러한 점을 자기소개서는 물론 면접에서도 많이 피력을 하였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지원 법전원의 장점을 많이 생각해 두시는 것은 법전원 입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입학 후의 법전원 생활에서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저의 경우 이화여자대학교가 여성의 능력을 많이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점과 사시사철 아름다운 교정 등을 장점으로 생각하였고 이러한 장점들이 법전원에서의 생활이 힘들 때마다 많은 위안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소개서 초본을 작성하신 후에는 첨삭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로스쿨 입시 학원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비로 고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미 법전원에 합격한

선배들에게 제 자기소개서를 보여드리고 첨삭을 받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물론 첨삭 받은 이후에도 한 5번 정도는 제 스스로 계속 고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공을 들일수록 더 좋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면접준비

면접의 경우 비슷한 점수의 학생들을 선발할 때 합격여부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자료와 스터디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카페에 가면 로스쿨 입시 자료를 공유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 곳에서 각 법전원 기출문제를 정리해 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모든 법전원의 1, 2기 입시 기출문제를 면접 준비에 사용하였습니다. 제가 속한 스터디에서 팀원이 총 8명 정도 되었기 때문에 2명씩 4조로 편성하였고, 2명은 면접자로 나머지 6명은 면접관 역할을 하여 직접 물어보는 방식으로 실제 면접을 보는 것처럼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를 노트북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면접자로 면접을 보았던 수험생들은 자신들의 면접 태도나 발음 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명의 면접관 역할을 하는 수험생들이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물어보지만 면접자의 답변이 신빙성 없다고 생각되면 추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임기응변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면접 준비도 하였지만 집에서 개별적으로 부모님께서 면접관으로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였고 이 역시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하였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자세나 억양, 눈빛 등이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면접에서도 이러한 준비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스터디를 통해 면접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논리적으로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문이나 시사 잡지 등을 탐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법전원 입시를 치를 때 화제였던 도서가 마이클 셉텔의 '정의란 무엇인가'였는데 제가 이화여대 면접을 칠 때에는 질문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 면접 시에 질문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면접장에서 자신이 읽은 문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좀 더 편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명한 화제도서나 사건 등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 대기실에 앉아 제 차례를 기다릴 때 느낀 점인데 많은 학생들이 불안해하

면서 예상 질문에 대한 답안을 외우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답안을 외울수록 예상치 못한 답안이 나올 경우 당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일 전에 최선을 다하시고 면접 대기실에서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면접 당일에는 예상 답안을 외우기보다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노력하였는데 그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VII.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미흡하지만 제가 준비한 방식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제 방식이 절대적인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수험생들 각각의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준비하시고 제 방식을 참고하시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법전원 입시에서의 주된 요소인 리트, 학점, 영어 성적이 만족스럽지 않아 지원하면서도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 완벽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구나 추가 합격자 커트라인의 경우 최초 합격자 커트라인보다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 지원하실 때 가, 나군 중 한 곳은 소신 지원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하지 않는 곳에 점수를 맞추어 지원하는 경우 합격 후에도 후회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